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 blog.naver.com/cityansan
㉢ facebook.com/ansancity3
㉣ twitter.com/ansancityhall
㉤ story.kakao.com/ch/ansan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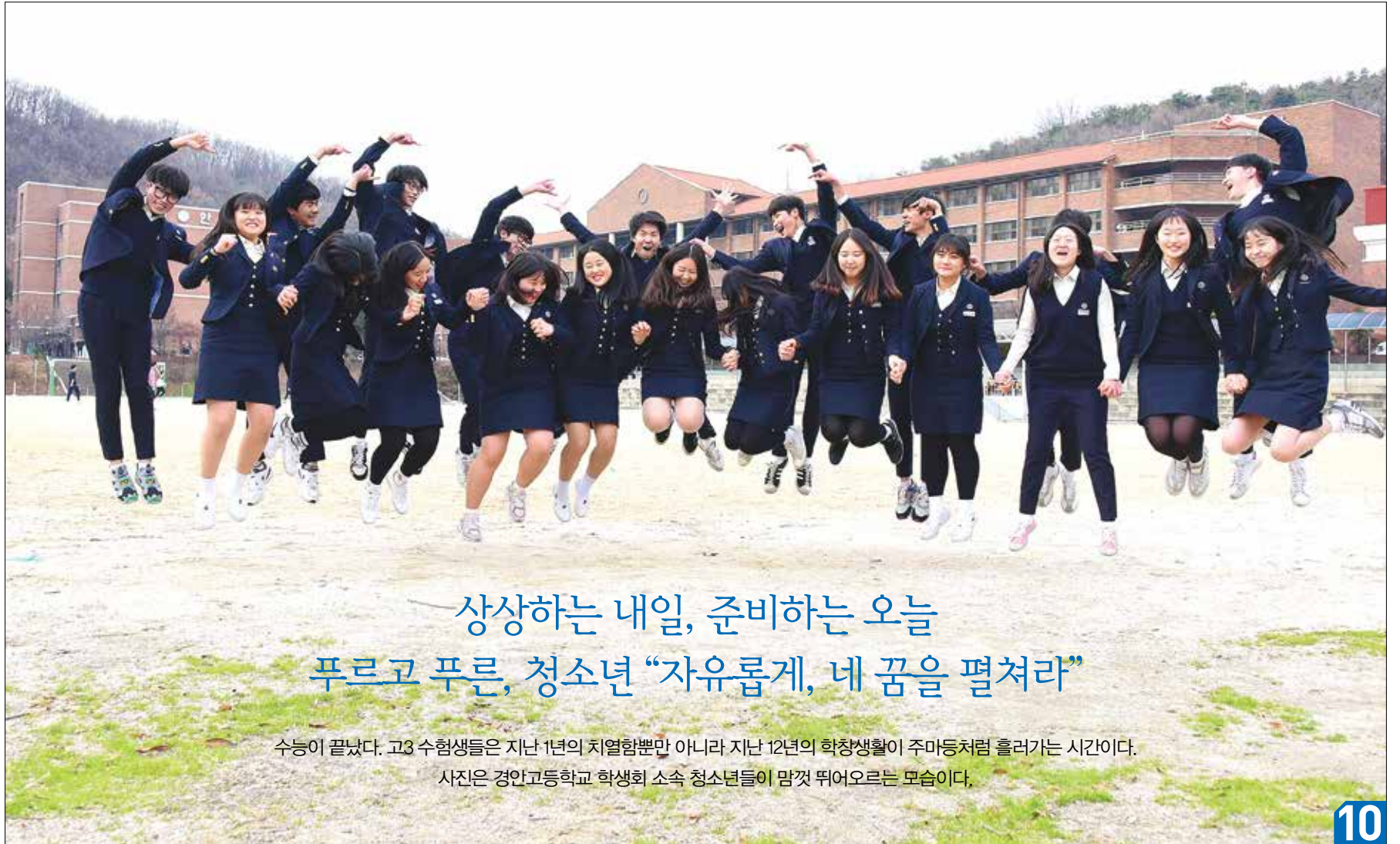
발행일 2016년 12월 7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iansan.net

e-브라보안산 https://bravoansan.net



상상하는 내일, 준비하는 오늘 푸르고 푸른, 청소년 “자유롭게, 네 꿈을 펼쳐라”

수능이 끝났다. 고3 수험생들은 지난 1년의 치열함뿐만 아니라 지난 12년의 학창생활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시간이다.

사진은 경안고등학교 학생회 소속 청소년들이 맘껏 뛰어오르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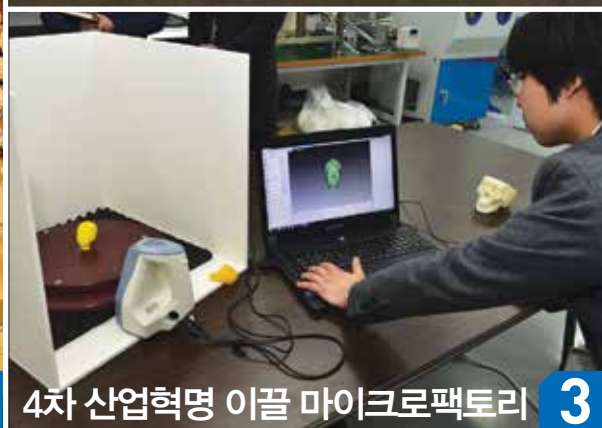
10



상인대학, 도심상권 활성화 모색 **2**



시화호 변천사 ‘죽음의 호수’에서 ‘생태계 보고’로 **8**



4차 산업혁명 이끌 마이크로팩토리 **3**



대부 선감도 해양리조트 조성 **4**

안산시 상인대학



“더불어 배우는 상인, 다함께 성장하는 상권”

210명 수료… 체계적 교육 받고 상권활성화 노력 전개

안산시 주요 상권에서 영업 중인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손님에게 보다 친근하게 인사하는 법 등 매출증대에 직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됐다. 안산시가 상인들의 조직력과 경영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다는 목표로 개설한 상인대학이 그것으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2기에 걸쳐 진행됐다.

1기는 예술광장로 및 선부광장로 2기는 문화광장 및 중앙동 중심상가 주변 상인들로 구성됐다. 각 157명과 거명의 대표들이 참여했으며 전체 228명 중 210명이 수료했다.

교육과정은 점포 경영기법이나 운영전략, 시장활성화 전략, 선진지 탐방 등으로 구분한 후 고객만족 및 서비스 리더십, 마케팅 기본개념, 유통환경 이해, 트렌드 변화, 소비자행동 이해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로 구성됐다.

안산시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이 우선 잘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적당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번 상인대학이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수료자들에게는 국내 선진지 견학 기회와 함께 전문가를 통한 점포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점포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도 계획돼 있다. 특히,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은 상인대학 참여자들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 경영환경과 시설환경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경영개선, 매출증대 방안, 점포 활성화 전략 등을 제시함으로써 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문의 : 지역경제과(031-481-2829)

interview

“공부하며 친해지니 상인회 가입도 늘더라구요!”

• 김덕상 안산시 예술광장로 상인회장



경기가 어렵다. 이럴 때 상인들과의 인터뷰는 쉽지 않다. “장사 잘 되시죠?”라는 흔한 인사말조차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안산시 상인대학을 1기로 수료한 김덕상(월피동 풍천장어 대표) 예술광장로 상인회장도 마찬가지였다. “요즘 어떠세요?”라는 질문에 “어렵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이럴 때

일수록 서로 도우며 이겨내야 한다. 안산시 상인대학의 탄생 배경이다.

김덕상 회장은 지난 2003년 충남 아산에서 안산으로 이사했다. 처음엔 산업단지 내 회사를 다니다 외식업을 시작했다. 어느덧 5년째다. 선부동과 원곡동에서 고기와 생선을 함께 팔던 경험으로 월피동에 큰 매장을 열었다. 현재, 풍천장어와 삼겹살을 함께 파는 1층과 생선구이와 찜을 파는 2층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무렵 예술광장로에서 영업 중인 대표자들이 모여 상인회를 구성했다. 회장으로 선출된 김덕상 대표는 상가 홍보를 위해 안산시 지역경제과를 찾았고, 그곳에서 상인대학에 대해 들었다. 곧바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실제 1기로 전

과정을 수료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던 영업주들이 이번 상인대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손님에 대한 방법이나 친절교육 같은 실무적인 부분이 특히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어 “평소 별로 친하지 않았던 다른 상인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러면서 더 친해졌습니다. 그 분들이 상인회에도 가입해주고, 서로 의지하며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라며 상인대학을 통해 상인회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예술광장로 상인회 자문위원인 박순철 대표(자연아래 영농조합)도 상인대학 1기 출신이다. 그는 “전문적 교육을 받지 못했던 우리들이 소비자관리 등을 배우고 나서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밖에 못했었는데 이제는 “맛있게 드셨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라는 식으로 훨씬 친근한 인사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예술광장로에서 영업 중인 대표자들은 안산시 1호로 ‘상점과 상인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상점’을 포함시켰다는 상징성이 있다. 선도적이다. 그 힘을 모아 내년 안산시 상권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상인대학이 그 초석으로 든든하게 자리매김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이끌 마이크로 팩토리 개소

“아이디어만 있어도 시제품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요”

3D프린팅 기술로 중소기업 수출과 청년 창업 지원

안산스마트허브(반월 ·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1만여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마이크로 팩토리(Micro Factory)가 11월 30일 문을 열었다. 마이크로 팩토리는 3D프린터 등 첨단 제조 장비를 활용, 빠른 시간 내 시제품 제작 및 소량 생산이 가능한 초소형 공장을 말한다.

100개 이하 소량생산, 역설계를 통한 도면제작 가능

안산은 수도권 최대의 국가산업단지를 바탕으로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의 한축을 담당해 왔지만, 최근 들어 노동환경의 변화, 기반시설 노후화 및 제조업 시장의 판도변화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과거의 활력을 잃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을 위주로 하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시제품 제작비용을 줄이고 싶은 일반기업 또는 훌륭한 아이디어는 있으나 창업비용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시간적 · 비용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이크로 팩토리의 존재는 ‘가뭄 속 단비’ 마냥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 팩토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형이나 프레스를 이용하여 최소 1,000개에서 많게는 10,000개까지 제작할 수밖에 없어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컸지만 우리는 3D프린팅을 활용하기 때문에 100개 이하의 소량생산도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일단 소량만 만들어서 시장의 반응을 살핀 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대량생산으로 가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에 대한 구상, 즉 아이디어만 있어도 역설계를 통해 도면 제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절반 이하의 최저 가격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마이크로 팩토리 개소는 4차 산업혁명에 동참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환경에서 우리의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제조업의 혁신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돼 보다 많은 강소기업들이 육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산에는 부품소재 기업이 많고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있는 안산사이언스밸리라는 지리적 강점도 있다. 거기에 지방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더해지면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안산사이언스밸리는 수년 내 최고의 인프라와 인력, 자금 등이 몰릴 것이며 이번 마이크로팩토리 사업단이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산시 상록구 향가울로에 위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영수) 융복합동에 마련된 마이크로 팩토리는 지하 1층 사무실(76㎡)과 지상 1층 장비실(199㎡)을 갖춘 규모로 안산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조혁신기술원이 공동 협력해 운영한다.

◇ 문의 : 산업정책과(031-481-3517)

“
안산 소재 기업에겐
절반 이하의
최저 가격으로
제공할 계획
”



대부 선감도에 친환경 해양리조트 들어선다

美리젠시 그룹, 투자 결정... 5천 억 경제효과, 5천개 일자리 '기대'



서해안의 낙조가 아름다운 안산 대부 선감도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체류형 관광단지 '오션베리 리조트 (Ocean Berry Resort)'가 조성된다. 부지면적 31만㎡, 총 사업비 1천800억 원이 투입돼 2018년 착공, 2022년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곳에 어린이들을

이지만,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 관광시설이 부족해 관광객 대부분이 잠시 체류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관광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대부도와 선감도는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나 관광객이 머무를 곳이 부족하여 체류형 해양리조트 조성이 절실하다."며 "경기도는 선감도가 서해안권 관광벨트의 핵심 자원으로 발전하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며 관계 기관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안산시가 구상하는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으므로 환영의 뜻을 전하며,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 해양안 전체험관건립, 박물관거리 조성 등 안산시 관광기반시설과 연계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리젠시 그룹의 이경희 CFO(Chief Financial Officer, 자금담당총괄책임자)는 "서해낙조가 아름다운 안산 선감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식의 친환경 해양리조트를 조성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곳은 가족형 리조트가 될 것이며, 특히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어린이 과학체험관을 비롯하여 스파와 문화시설을 복합화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다양한 관광객이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미국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도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문의 : 마이산산업과(031-481-3433)

위한 키즈(kids) 사이언스파크, 워터 파크, 관광호텔, 아쿠아리움 등 미국형 해양리조트를 유치하여 약 5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5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근에 바다향기수목원, 경기 청소년수련원, 엑스퍼트연수원, 경기창작센터 등이 입지한 상황으로 오션베리 리조트가 조성되면, 선감도와 대부도 일원이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감도를 포함한 대부도는 연간 860만 명이 방문하는 서해안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하나

도시농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시킨다

도시농부 어울마당, 문화광장에서 열려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부들의 수확잔치, 2016 도시농부 어울마당이 11월 26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열렸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수확잔치답게 흥을 돋우는 신명나는 공연과 체험, 먹거리가 오가는 시민의 발길을 붙잡았다. 마침 첫눈까지 내리는 날씨 덕분에 떡메를 치고 김장하는 부스가 인기를 끌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움츠린 어른들과 달리 텃밭놀이와 짚공예에 빠진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난 모습이었다.

행사장에는 도시농부들이 키운 채소와 전통농기구가 진열됐으며, 학교 텃밭 강사단과 함께하는 '밀싹 심기', 거름 만들기 등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행사 관계자는 "도시농업 하면 도심 외곽에 자리 잡은 텃밭활동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도시농업을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전반적인 활동을 도시농업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만들어진 안산도시농업연대는 도시텃밭활동을 하는 개인, 텃밭공동체, 시민단체, 협동조합이 모여 만든 것으로, 생태순환농법을 통해 환경과 생명을 살리고 토종 종자를 보존 및 보급하는 사업을 포함해, 도시의 공동체 문화, 일자리창출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도시농부학교, 어린이농부학교 등 누구나 텃밭농사를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텃밭강사를 양성해 관내 청소년과 함께 학교에서 텃밭을 일구도록 해 청소년의 정서적인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안산경실련 고선영 국장은 "도시농업이 단순히 먹는 것만 키우는 자급자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잔디와 나무를 심어놓고 바라만 보는 공원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공원에 식물을 키우고 가꾸는 원예활동에도 참여하고 골목에 상자텃밭을 키우며 이웃과 나눠 먹는 등 정을 나누는 과정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체문화가 형성되는 그런 활동들이 바로 도시농업의 범주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농부가 수확한 채소를 지역의 식당에서 소화하는 순환구조를 통해 사회적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도시농업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안산에 뿌리내린 도시농업의 결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기대를 안고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 문의 : 안산경실련(031-402-6116)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안산形 강소기업 육성 현장을 가다④

유버(주)

자외선(UV)과 LED의 융합으로 기술을 선도하다



구교육 선임연구원

공상진 무서장

130개 특허 보유... 디스플레이·반도체 업체에 독점 공급

유버(주)는 2010년 12월에 창업한 벤처기업이다. '유버(UVER)'는 UV(자외선)와 LED의 합성어로 'UV를 이용하여 창조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며, UV(자외선) LED(발광다이오드)를 기반으로 한 융합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UV LED를 응용한 국내외 130여 건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한 UV LED 시스템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LED응용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은 세계 15%, 국내 40%를 차지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살균 제품을 만들기 위해 창업했으나, 틈새시장인 경화기 시장을 발견했고 이를 공략하면서 연간 100% 이상의 고성장을 이루며 강소기업으로 우뚝 섰다.



'2016 대한민국 기술대상' 수상

현재의 유버가 이 위치까지 오게 해 준 주력제품은 'UV LED 편심 선형 경화기'로 '2015 IR52 장영실상', '2016 대한민국 기술대상'을 수상했다. 얇은 선형 UV LED 경화기 4대를 사각형 형태로 배열해 디스플레이 패널과 강화유리를 접합 공정에서 사용된다. 기존의 경화기는 크기가 크고 모서리 부분에 경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해당 기술은 렌즈와 UV LED를 기구 끝단으로 이동하게 하여 4면이 모두 균일하게 조사(照射)돼 불량문제를 해결하면서 생산효율이 20% 이상 상승했다. 이는 유버에서 4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타 업체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독자적인 기술이며, 이를 통해 국내외 유수의 디스플레이·반도체 업체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130여 개의 특허 보유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외선 경화기가 최근에는 정밀 기기 분야로 사용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유버는 2015년부터 주력상품으로 고출력 경화기를 개발,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 고출력 UV LED 광원으로 COB(Chip-on-board)가 사용되며 PCB에 LED 칩(Chip)이 미세하게 집적화되어 있어 높은 출력을 필요로 한다. COB 고출력 경화기는 이번 안산시 강소기업 과제의 사업화 모델이기도 하다.

기술력과 마케팅으로 시너지 창출

유버는 단순 접착뿐만 아니라 얇은 패턴을 입히는 노광기술 개발 등

사업화를 위한 제품 양산화 시스템이 완료됐다. 5종의 제품에 대해 고객사와 기술 및 구매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들은 2016년 기준 약 1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용훈 대표는 "유버는 연구 개발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연구에 치중하다보니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이번 안산시 강소기업 지원으로 홍보와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경기ITP 지식센터 팀에서 국내외 특허 인증과 관련된 업무도 해주었고 해외 마케팅에도 힘을 실어줬다."며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제품군을 다변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미국, 일본 등에 수출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강용훈 대표
"연구에 치중하다보니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안산시 강소기업 지원으로 홍보와 마케팅에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윤용식 기술지원팀장은 "유버는 출원 및 특허가 100건 이상이며, 전체 매출의 대부분이 특허 기술이 반영된 제품을 출시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자외선 경화기는 정밀 광학, 모바일 부품, 디스플레이 부품, 차량 전장 부품 등 산업 전반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기ITP는 유버의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된 과제에 대한 특허 취득,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화형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테크노파크 윤용식 기술지원팀장은 "유버는 출원 및 특허가 100건 이상이며, 전체 매출의 대부분이 특허 기술이 반영된 제품을 출시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자외선 경화기는 정밀 광학, 모바일 부품, 디스플레이 부품, 차량 전장 부품 등 산업 전반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기ITP는 유버의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된 과제에 대한 특허 취득,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화형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유버(주) (031-500-3330)

주소 :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RIT센터 802호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성공회대학교와 함께한 2016안산노동대학

“노동자는 자신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를 스스로 풀어야”



노동친화도시 안산에서 근로자들의 권리와 건강한 사회 문화 형성을 돕기 위한 노동대학이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와 함께 마련돼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진행됐다. 총 10회 강좌를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2013년 시작해 4기를 맞은 노동대학은 안산의 비정규직·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열려 올해 처음으로 1회 졸업생 20명을 배출했다. 이들은 ‘배우고 깨우치며 만나고 소통하는 즐거움의 공간’ 안산노동대학에서 노동과 삶을 성찰하며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을 바라봤다.

매년 9월에서 11월 ‘역사·경제·문화·세계’를 주제로 순환 진행되는 노동대학은 올해 ‘세계 노동’의 다양한 모습들을 전해줬다. 인간의 노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유럽의 노동과 남미의 노동은 우리의 노동과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대한민국 미래의 노동 모습까지 그렸다.

지난 11월 16일 마지막 10강에서는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강신준 교수가 ‘행복한 노동을 위한 상상’이란 제목으로 강의 했다. 강 교수는 “존엄한 존재로서 인간의 동질성 확보는 타인을 위한 노동행위를 멈출 때 비로소 자본가와 노동자가 똑같아지면서 가능해진다.”며 “노동자는 자신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를 주인에게 풀어달라

고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풀어야하는데 카를 마르크스는 고대 그리스의 검투사 노예 스파르타쿠스를 예로 들었다.”고 말했다.

강신준 교수는 또한 “현대적 의미의 족쇄를 끊어내려면 목표와 수단을 포함한 강령이 있어야 한다.”며 아직 열정이 살아있는 금속노조 15만 조합원의 저력을 예로 들었다. 조합원들이 노후 대비용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만 모아도 조합에는 매월 450억 이란 돈이 모이고 일 년이면 5천5백억 원이 쌓인다. 10년이면 5조5천억 원이란 거대 자본이 형성되니 총 자본 2천억 원대 한진중공업 같은 기업의 총수 정도에게 족쇄를 풀어달라고 크레인에 올라가 장기 농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강 교수의 이 주장에 대해 수강생들은 “노조활동의 새로운 방향 제시”라고 평가했다. 2016년 4기에는 91명이 입학했으며, 10회의 강좌 중 80% 이상을 참여한 67명이 수료했다.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학장이기도 한 하종강 안산노동대학 학장은 “안산만큼 노동대학이 잘되는 곳이 없다.”며 “내년에 5기 안산노동대학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미란 명예기자(whity0218@naver.com)

주정차CCTV단속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하세요

안산시가 CCTV단속지역에 주정차 시 이를 휴대폰 문자로 차량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주정차CCTV단속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이하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문자알림서비스는 CCTV단속지역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그 사실을 차량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안산시 관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

다. 안산시 홈페이지(<http://parkingsms.iansan.net>)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문자를 받은 차량운전자는 단속시각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문의 : 상록구 경제교통과 031-481-5287
단원구 경제교통과 031-481-6279

겨울나기

“수도계량기 동파는 예방이 최우선!” “겨울철 상수도 시설 동파예방 대책”추진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이하여 수도계량기, 급수관로 등 시설물의 동파방지를 위해 겨울철 상수도시설 동파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동파 발생 시 신속한 교체를 위하여 상황단계별 민원처리기동반을 편성·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특히 동파발생 취약지역인 대부도를 집중관리하며, 금년 11월~12월 2개월간 안산시 전역에 수도계량기함을 점검해 동파 우려가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점검결과를 고지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시설물 관리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는 특히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보온을 해도 계량기가 얼 가능성이 크니,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놓고 사용하면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031-481-2037

‘상록수·단원보건소’ 한파대비 취약계층 집중 방문건강관리 지원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는 동절기 한파에 대비하여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과 질병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한파대비 집중 방문건강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기간 동안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가구와 경로당을 방문하여 기초검진과 방한용품(수면양말 등)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한파대비 건강수칙 및 응급시 대처법, 행동요령 등의 보건교육을 진행한다.

한파 특보 발령시 SMS를 통한 한파대비 건강수칙 안내와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연계 운영(관내 응급실 운영 병원 9개소)하여 취약계층이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 문의 : 단원보건소 031-481-3512
상록수보건소 031-481-5952

화정천이 보이는 마을 사랑방, 꼬두물정류장

“힐링하고 가세요. 누구나 출입 가능한 소금방도 있어요”

꼬두물정류장에 가면 창밖으로 화정천이 훤히 내려보인다. 그래서 이름도 ‘화정’의 뜻을 이인 ‘꽃우물(꼬두물)’이다. 이곳엔 특히 ‘소금힐링방’이 있다. 사방이 온통 소금인 이 방에서 잠시 쉬면 소금 1톤에서 나오는 음이온으로 기관지를 소독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누군가의 ‘힐링’에 도움을 주고 싶은 이들이 모여 ‘소금버스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이 버스가 정착하는 첫 번째 거점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정류장’이라고 이름 붙였다. 꼬두물정류장은 2015년 7월 세월호 생존학생들이 쉬고, 놀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이곳에서는 목공, 우드버닝(wood burning), 천연화장품, 비폭력대화 등 각종 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단원고 생존학생들은 모두 졸업,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도 놀러오고, 오전시간엔 마을 주민들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요즘은 ‘푸드아트 테라피(food art therapy, 식재료나 완성된 요리로 또 하나의 창작품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치유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점심식사도 함께 하는 마을 사랑방이 되었다.



현재 꼬두물정류장 상근자는 총 세 명이며 그 중엔 세월호 생존학생도 한 명 포함되어 있다. 졸업생 및 재학생 등 4명의 학생 스텝(staff)들은 행사 때마다 와서 도와주고 있다. “마을 내에서 세월호 사건이 구분되지 않고 흡수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운영팀 노승연(24세, 고잔동)씨는 “조만간 시작될 천연화장품 수업은 세월호 희생자 부모께서 직접 선생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마을 주민과 만나는 첫 수업이라 많이 설레요. 앞으로 이 공간이 주민으로서 서로를 만나고 지식을 공유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꼬두물정류장은 영리목적 없이 여러 공모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위치는 단원구 단원로 6 광운상가 2층이다.

◇ 문의 : 페이스북(www.facebook.com, 주소: 단원구 단원로6 광운상가 2층)
유가희 명예기자_425170@naver.com

안산교육지원청 내 416기억교실, 일반인에 공개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지난 8월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으로 임시 이전되었던 ‘단원고 416기억교실’이 3개월여의 작업을 마치고 11월 21일부터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었다. 416기억교실은 416가족협의회, 경기도 교육청 등 7개 기관의 대표들이 함께 했던 ‘새로운 교육을 위한 사회적합의’ 중 416안전교육시설 건립에 따라 마련됐으며, 단원고에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별관으로 임시 이전된 후 구현작업이 진행되었다.

250명의 아이들과 11명의 선생님이 남

겨준 유산과도 같은 416기억교실은 안산교육지원청 별관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있다. 1층에는 2학년 1반부터 4반, 2층은 5반부터 10반 교실이 있다. 별관 입구에 새겨진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라는 문구가 교실을 찾는 이들에게 더 큰 울림을 전하고 있다.

416기억교실의 개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예약방문만 가능하다. 미처 예약을 못한 당일 방문자는 안산교육지원청 본관 당직실(031-412-4634)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불편함 없이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게 운영할 것이며, 2019년 416안전교육시설이 건립되면 교육시설 내 추모공간으로 최종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416기억저장소(031-410-0416)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안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100일 기념 역사포럼

“소녀상을 사람처럼... 사랑 듬뿍”



상록수역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해 일본대사관 앞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은 조각가 김서경·김운성 부부가 함께 만든 작품으로 원래 비석 형태였다가 일본 정부의 압력이 들어오자 분노한 할머니 조각으로 변경됐다. 처참한 상처를 받았던 당시 나이대의 소녀상이 일본대사관 앞에 있으면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으로 재탄생됐다.

김운성 작가는 말한다. “사실 일본 대사관까지가 우리 작품의 일부예요. 일본대사관을 바라보는 소녀상이 거기 있을 때 의미가 있고, 다른 소녀상이 생겨도 의미가 있잖아요.” 소녀상은 상징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파편으로 조각 난 할머니 형상 그림자는 어둡고 아픈 과거의 상처 난 마음을 상징하고, 그 가운데 그려진 나비는 할머니들의 영혼을 위로한다. 소녀상의 들쭉날쭉한 머리카락은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갔던 당시 상황을 말하고, 어깨에 얹은 새는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살아있는 할머니들을 연결시켜주는 영매 역할을 한다. 소녀의 들려진 발뒤꿈치는 고국에 돌아와서도 마음 편히 머물 곳이 없었던 현실을 그리며, 빈 의자는 우리에게 그 자리에 함께 앉아 공감해볼 것을 청한다.

김운성 작가는 “한 학생이 편지를 써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앞’으로 보내면 우체부가 소녀상 손 위에 딱 갖다 줄 정도예요. 어떤 나라의 조각가도 이런 영광과 호사는 없을 거예요. 사람처럼 대해주고 같이 눈물도 흘려주고, 조각은 저희가 했지만 평화의 소녀상은 국민들의 작품이죠.” 추운 날씨, 소녀상 옆자리에 앉아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 생각해보면 어떨까.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naver.com



생성시기 : 1994년 1월
행정구역 :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3개 시에 걸쳐 위치
유입하천 : 신길천(5km), 반월천(10.5km)
 안산천(8.2km), 동화천(12.2km), 화정천(3.5km)
시화방조제 길이 : 12.7km / 시화방조제 높이 : 8.5m
조성공사 총비용 : 4천930억원
유역면적 : 476.5km² / 간척지 생성 : 133.7km²
수면적 : 79.4km² / 저수용량 378백만m³
수변길이 : 77.3km
인구변화
 1990년 54만명 → 1995년 81만명 → 2000년 109만명 → 2002 122만명
사업체 변화
 1995년 1차산업 123개 / 2차산업 7,960개 / 3차산업 33,972개
 2000년 1차산업 90개 / 2차산업 13,215개 / 3차산업 48,808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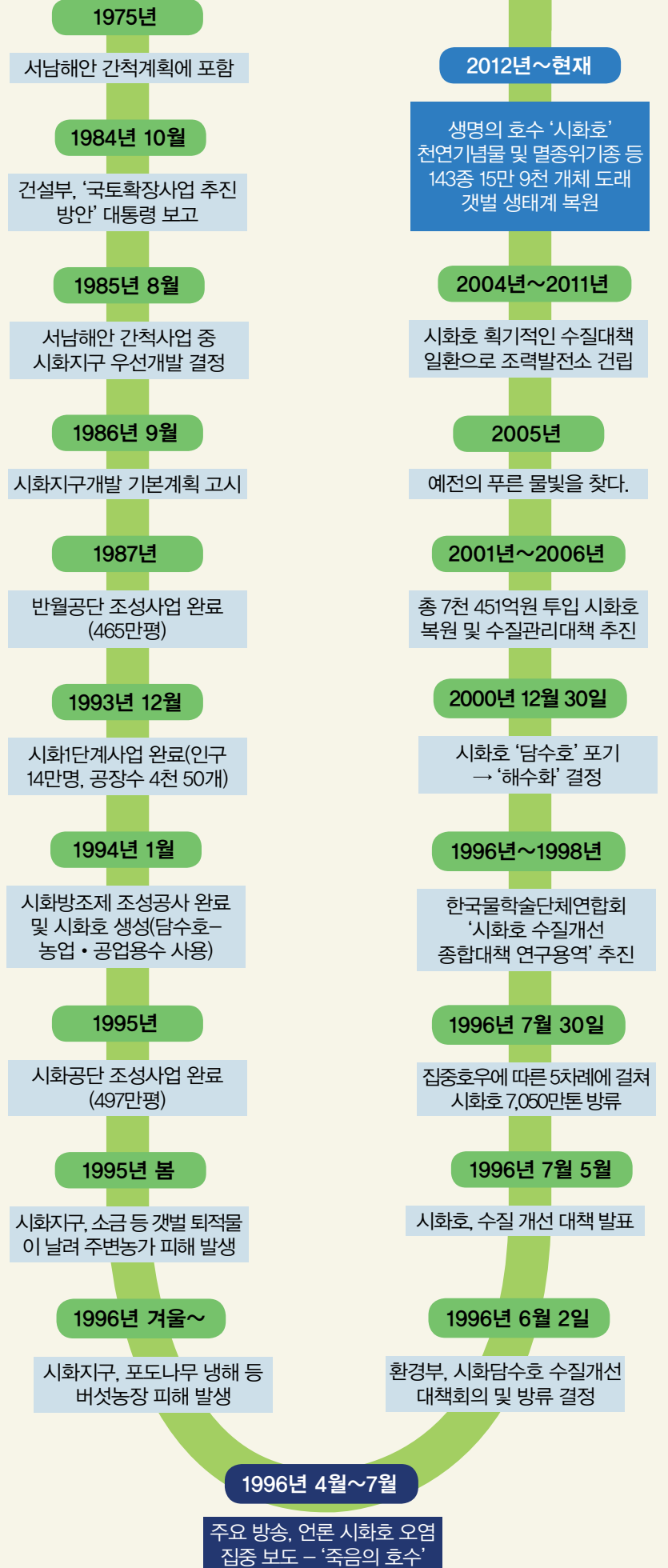
해도 다시 과
생각하느라 환
정할 수밖에 없
장치를 남겼다.
중장기로 나
푸른 물빛을
제법 맑은 빛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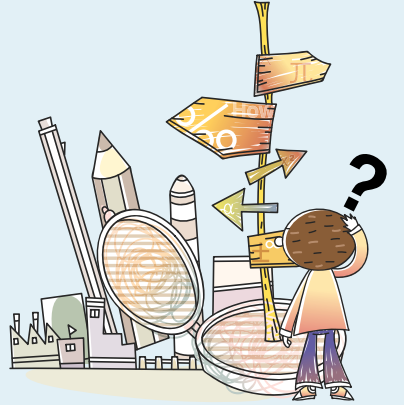
다시 첫빛물들 시화호 그리고 꿈꾸는 도시 안산 시화호와 안산시의 비전

아직 우리가 시화에게 진 빚을 다 갚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오를 뉘우치는 한편 복구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쏟아 부은 사실 또한 가벼이 여길 수 없다. 그렇다. 시화호는 환경오염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벗고 다시 예전의 푸른 물빛을 우리에게 선사하게 되었다. 영롱한 그 이름 '첫빛물들'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말이다. 안산시는 시화의 아름다운 이름을 지키는 한편 생태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미래로 가꾸기 위해 조력자와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것이다.

시화호 연혁



상상하는 내일, 준비하는 오늘 푸르고 푸른, 청소년 '자유롭게, 네 꿈을 펼쳐라'



요즘 청소년들은 바쁘다. 몸과 마음이 똑같다. '꿈도 미래도 없는 것 같다'는 어른들의 노파심도 있지만 말 그대로 '필요 이상의 걱정일 뿐'. 나름대로는 처리해야 할 일도 많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고민 또한 많다. 수능이 끝났다. 고3 수험생들은 지난 1년의 치열함뿐만 아니라 지난 12년의 학창생활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시간이다. 대학입학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재

수를 해야 할 지도 모른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어려운 집안을 돕기 위해 곧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청소년도 있을 것이다. 다가올 미래가 궁금하고 그만큼 불안감도 동반된다. 중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상급학교나 상급학년 진학을 위해 이래저래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가운데'에서 '높은 곳'으로 오르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초등학생이라고 쉽다고 할까. 어느덧 훌쩍 커버린 키 만큼이나 주변의 기대도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안산의 청소년들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을까?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었다. 소개한다.

● “환경을 생각합니다” | 생태환경 아카데미 공유회

뜨거워지는 환경공동체의식과 생태감수성

11월 26일, 안산문화재단에서 '생태환경 아카데미 공유회'가 열렸다. 환경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가족 동아리를 구성하여 인식 전환과 생활 실천 촉구를 위해 운영하는 안산환경재단의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동아리 활동의 결과물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했다. 공유회는 청소년의 주체적인 활동으로 구성됐다. 다량의 기획부터 장소 섭외, 촬영과 편집까지 스스로 담당하는 단원고는 바람의 하루를 표현한 '바람결', 자연의 소리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를 담은 '같이 갈래', 잔반을 버리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잔반은 DOWN 환경은 UP' 등을 발표하며 환경보호 실천의 중

요성을 알렸다. 동화를 제작한 고잔고는 지구온난화와 사막화의 위험을 알리는 '코비의 환경보물찾기 대탐험', 재활용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알리는 '조스와 나스, 다시 찾은 우정' 등을 선보이며 환경 공동체 의식을 일깨웠다. 낭독연극을 준비한 시곡초는 화학비료의 사용 자제와 과소비를 지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오투(O₂)의 마법사'를 재미있고 친근하게 선보였으며, '갈대습지의 벗' 가족동아리는 시화호의 갯벌 생태를 체험하고, 갈대 종이 만들기 체험 등의 소감 공유를 통해 생태감수성을 높이는 데 앞장섰다. 오호연(단원고3) 학생은 "소음도 환경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앞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라고 전했다. 양정규(단원고3)학생은 "대기로 정화시키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사람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분리수거를 꼭 지키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문의 : 안산환경재단 031-599-9405
김희경 명예기자 kepa-korea@hanmail.net

● “아르바이트를 해볼까요?” | 우리동네안심알바사업장 지도

수능 끝, 알바 시작... '이것만은 알아야 해'

수능이 끝나 아르바이트에 도전하는 수험생이 많아진다. 사회에 내딛는 첫걸음이 억울함과 부당함으로 기억되면 안 된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꼭 챙겨야 할 권리에 대해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박재철 센터장은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재보험을 들었다. "최저임금은 올해 말까지는 6,030원이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6,470원이 적용되고 1주일 합해서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것,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라며 "일하다가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센터는 안산시 단시간노동자를 위해 2015년부터 노동인권 지킴이와 함께 실태조사에 나섰다. 6대 프랜차이즈 업체 전체 사업장으로 대표업종인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커피전문점, 제과점, 피자전문점을 우선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최저임금 수준,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 근로기준법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사업장 내 성희롱, 폭언·폭력, 4대 보



험 가입 여부 등 근무만족도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우리 동네 안심알바사업장 지도'를 제작했다. 실태조사에 나섰던 문미화 씨는 "학생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후배들만은 꼭 최저임금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동인권 지킴이 활동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031-487-4870)
송민아 명예기자 junseo1000@hanmail.net

● “효도하는 법도 공부합니다” | 찾아가는 효 인성교육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등 70여 곳



무릎에 가지런히 손을 얹고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7세 어린이들이 사자소학(四字小學)을 노래로 익힌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 교육으로 사자소학의 한 대목을 노래하듯이 부르고 그 뒤에 한글 뜻을 따라 한다. 이번에는 다도를 배운다. 찻잔에 차를 따르는 모습이 조심스럽다. 향을 느끼고 눈으로 보고 맛을 느껴보자는 강사의 말에 따라 차를 마신다. 차에 들어있는 다섯 가지 맛을 음미하듯 천천히 세 번에 나눠 마신다.

다도를 배우고 다시 책자를 펼치고 노래를 부른다. 호기심어린 질문을 하기도 한다. “엄마 이름을 물어보면 어떻게 말해요?” “집에서 아빠께 잘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드리는데 잘하고 있지요?” 등등. 책자

를 보지 않고서도 척척 사자소학을 외운다.

안산시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6.4.20),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고취와 효행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핵가족 및 고령화, 물질만능과 개인주의가 만연해지는 요즘,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인 효(孝) 문화와 경로사상의 중요성을 되새김으로써 ‘효(孝)문화 도시, 안산’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효·인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효 지도사, 효 문화설계사, 효 교육지도사, 효행 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3개의 전문 기관이, 교육을 희망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 찾아가는다. 사자소학과 다도를 통한 교육 외에도 실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라는 인성 함양 8가지 덕목에 대해서도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교육하고 있다.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효 인성교육은 총 72개소(어린이집 39개소, 지역아동센터 23개소, 초등학교 10개소)에서 실시한다.

◇ 문의 : 사회복지과(031-481-2870)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 부모님들을 위한 특강 | “아이들은 실컷 놀아야 합니다”

상록어린이도서관 심리학 놀이터 부모 특강



11월 29일 상록어린이도서관에서 “아이들은 실컷 놀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태형 작가의 부모님 특강이 진행됐다. ‘심리학 놀이터’라는 이름을 붙였다. ‘실컷 놀 아이가 행복한 어른이 된다’의 저자인 김 작가는 아이들의 노는 시간에 대한 권리와 중요성, 불안한 부모에 대한 치유를 말했다. “동물들이 놀이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듯 아이들도 놀이를 통해 인간의 생존능력인 사회적 기술을 학습한다.”며 “타인의 속마음을 추측하고 소통하며 공감하는 능력, 관계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놀이가 이러한 관계 능력을 발달시

키는 통로”라고 했다. 또한 놀이의 박탈이 ‘자유와 사회적 욕구의 박탈’로 이어지고 그 결과 동기저하, 의욕상실 등 정신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어린 시절 스스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힘이, 어른이 되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으로 연결된다.”며 “인간의 행복에 중요한 사회적 관계를 추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의 노는 시간’을 위해 부모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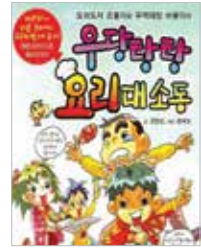
교육에 참여한 김명미(41세, 부곡동) 씨는 “평소에 관심 있던 주제였는데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기쁘요. 놀이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위로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어요.”라고 말했다. 김미성(37세, 부곡동) 씨는 “아이를 놀게 하는 것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놀이가 소통과 공감능력을 키워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니 안심과 확신이 들었어요.”라고 전했다.

◇ 문의 : 상록어린이도서관 031-481-2671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책 읽는 안산 / 12월 첫 번째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맛있는 요리의 세계』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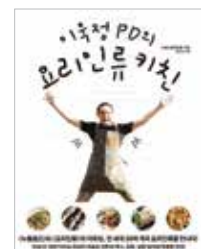


우당탕탕 요리 대소동

저자 문정민 / 출판사 종이책

착하고 생각이 깊은 꼬마요리사 조물리와 천하의 말썽꾸러기 동생 버물리가 서로 대결하고 경쟁하면서 요리법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야기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요리들이 등장하면서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요리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요리로 배우는 과학상식 등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정보도 담겨있다.

청소년



이육정PD의 요리인류키친

저자 이육정 / 출판사 예담

다큐멘터리 ‘요리인류’와 ‘누들로드’에 미쳐 담지 못한 이야기, 그 남겨진 재료를 엮어서 만든 책이다. 음식과 요리에는 한 지역이나 국가의 지리 문화적 특성이 녹아들어있고, 더불어 인류의 역사가 살아 숨 쉰다. 전 세계 요리인류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60여 개의 레시피가 메인 재료가 되었다. 그리고 그중 31개의 레시피를 엄선했다.

성인



요리 도감

저자 오치 도요코 / 출판사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이 책은 누구든지 스스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요리 용어, 조리 도구, 식재료, 조미료, 안전 사항 등 요리에 관한 모든 지식이 담겨 있다. 상세하고 알기 쉬운 설명, 요리 과정을 세세하게 담은 풍부한 일러스트들을 한 장 한 장 접하다 보면 어느새 요리의 재미에 흠뻑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년합창단 ‘유스 앤 드림’ 창단연주회

“삶을 담은 멜로디로 만들어내는 하모니”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중장년과 노년의 사람들이 만나 음악에 대한 열정과 꿈으로 하모니를 이뤄내는 ‘유스 앤 드림(Youth & Dream) 합창단(단장 김연)’을 찾았다.

‘유스 앤 드림 합창단’은 수십 년간 합창단으로 활동하던 이들이 60세가 되어 자동 탈퇴됨으로써 더 이상 합창이 어려워진 분들을 위한 곳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돕고자 2015년 6월 오디션을 통해 비영리단체로 설립했다.

안산시여성합창단, 상록구어머니합창단, 단원구여성합창단, 반월어머니합창단에서 활동하던 여성 단원을 주축으로 남성들도 함께하면서 안산 유일의 연령과 성별을 초월한 혼성합창단을 꾸렸다. 30대부터 70대까지 있으며 평균나이는 48세, 단원은 80명이다.

김연 단장(64세)은 “합창단원으로 오래 활동해온 분들이라 노래실력은 물론이고, 성악 전공자, 음악 교사 등 악기를 잘 다루는 분들도 많아요. 창단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다문화 예술 공연에 재능기부를 했고, ‘경기도 장애인 합창대회’에서는 단원들이 대상과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여성·혼성·실버 중창단을 꾸려 초청공연과 요양원을 찾아가는 등 재능기부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군부대나 교도소, 농촌 지역 등을 찾아다니며 어른으로서 안산의 홍보대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현재 안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를 맡고 있는 고광철 지휘자의 손끝을 따라 소리가 일제히 움직인다. 단원들은 코끝에 손가락을 대거나 목의 울림을 느끼며 발성 연습을 한다. “목을 열어라, 흔든다고 좋은 건 아니다. 부드럽지만 깨끗하고 정확하게”라며 “가래떡 뽕뽕 쫄득득하게 소리를 줘요”라고 주문한다. 소프라노와 알토의 단아한 음색과 테너, 베이스의 중후한 목소리가 아름다운 하모니로 울려 퍼진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합창단원으로 활동 중인 송진섭 씨는 “실력은 부족하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원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도시의 즐거운 에너지가 되기 바랍니다.”고 했다. 성경호 씨는 “대한합창단, 한국기독교남성합창단에서 활동하다가 현재는 상록구 노인복지관, 일동 성악교실 등에서 열심히 노래하는 일명 ‘합창대학생’입니다. 무대에서는 즐거움보다 연습하면서 동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더 큼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을 조율하는 합창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많은 지혜를 줍니다.”며 환하게 웃었다.

합창단은 오는 12월 18일(일) 저녁 7시에 안산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창단연주회를 연다. 가곡, 민요, 대중가요, 캐럴 등 다양한 레퍼토리에 삶을 담아 인생을 노래한다.

◇ 공연 및 입단 문의: 유스 앤 드림 김연 단장(010-3747-7319)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해요”... 쌀로 만든 빵 ‘인기’

지역 내 20개 수제 빵집, 한호전에 모여 시연회



쌀로 빵을 만들어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한 시식연회가 안산의 수제 빵집 20개소 주최로 11월 22일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시식연회는 쌀가루로 만드는 카스텔라를 포함, 밀 대신 쌀을 주재료로 만든 40여 가지 빵이 소개돼 참여 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완두콩과 팥으로 속을 채우고 흑미로 쫄득한 식감을 살린 흑미 삼색배기, 부드러우면서도 촉촉한 쌀 롤 케이크, 쌀 초코 타르트, 쌀가루와 야채를 더한 모닝빵, 아이들 입맛에 맞춘 쌀 햄 치즈 빵, 쌀과 생강이 조화를 이룬 과자, 국산 팥으로 만든 쌀 단팻빵, 쌀 크루아상, 쌀 머핀, 쿠키 등 종류도 다양했다. 행사에 참여한 20개 빵집들은 서로 겹치지 않게 두 가지 씩 자신만의 독특한 쌀 빵을 선보였다.

‘보기 좋은 빵(?)이 먹기에도 좋다’고 했는데 선보인 빵들은 먹음직스럽고 풍미도 좋

았다. 글루텐이 함유되지 않은 쌀은 누룩으로 발효시켜 빵을 만든다. 밀가루 빵에 비해 위장에도 부담이 적은 건강식이다. 바쁜 아침에 식사대용으로 추천할 만하다.

선부동 솔로몬제과점 김기철 사장은 “쌀 빵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적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도 괜찮을 것”이라며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식사대용으로도 그만”이라고 했다. 제과협회 안산시지부장이기도 한 김기철 사장은 “정성으로 직접 빵을 만드는 수제빵집에서 대전의 성심당이나 안흥진빵처럼 안산을 대표하는 쌀 빵이 탄생하도록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밥(쌀)심으로 살던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가 쌀밥보다는 밀가루 빵을 즐기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쌀 소비량이 매년 줄고 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쌀 생산량은 433만 톤이고, 누적 재고량은 144만 톤에 이른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매년 수입하는 밀의 양은 연간 우리나라 쌀 생산량의 54%에 육박하는 235만 톤에 달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쌀 생산 농가에 희망을 주고, 정부의 쌀 재고 처리의 고심을 덜어 세금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쌀 소비를 늘려 밀가루 수입을 줄이는 것”이라며 “쌀 빵 시식연회는 이러한 취지로 마련됐고, 쌀 소비에 뜻을 같이하는 안산의 20여개 제과점이 쌀 제빵 기술을 익혀 동참했다.”고 말했다. 안산에서 제일 먼저 쌀로 빵을 만드는 기술을 배운 20개 업소는 이날 시로부터 ‘쌀 빵 제조 인증서’를 교부받았다.

◇ 문의: 안산시 식품위생과(031-481-2231)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현대적으로 재해석 된 산수(山水) 속 흥미로운 풍경들

단원미술관 겨울 기획전 열어

겨울기획전 '山水, 풍경으로부터'가 2017년 1월 31일까지 단원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강소영(릴릴), 구본아, 김보민, 김봄, 김신혜, 박능생, 오민수, 윤세열, 이이남, 임채욱, 임택, 홍란 등 12명의 젊은 소장파 작가들을 불러 내 한국 산수(山水)의 다채로운 갈래를 보여준다.

다양한 영역의 개성 넘치는 작품



김보민 - 개화

먹과 한지라는 전통적인 한국 화 재료의 범주에서 벗어나 현대미술이 촉발하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들을 담아 산수(山水)의 다양한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작가들의 여정은 관람객에게 감상의 즐거움을 더한다. 일상의 풍경과 이상적 풍경이 공존하고, 도시풍경과 가공된

풍경이 겹치는 등 '한국 산수의 외연이 이렇게 넓었던가' 하는 감탄을 자아낼 만큼 전통 산수화와는 구별되는 개성 넘치는 작품세계를 이번 전시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더불어 평면의 공간적,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 3차원의 공간에 산수의 풍경을 등장시키는 등 젊은 작가들의 고민을 만날 수 있다.

단원 콘텐츠전과 연계한 전시



임택 - 옮겨진산수유람기06

이번 겨울기획은 단원 김홍도의 <행려풍속도병>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이는 단원 콘텐츠전과 연계해 진행되며, 단원의 작품 세계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수화'와의 연결을 시도하는 전시로 열린다. 단원 김홍도가 남긴 산수에는 기존의 진경산수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지극히 주관적인 관념과 인상들이 그의 재치 있고 유려한 붓질을 통해 표상되어 있다. 이번에 소개되는 산수의 다양한 풍경 또한 김홍도의 개성만큼이나 표현의 스펙트럼이 유별한 작가 저마다의 깊은 사연을 만나는 흥미로운 전시가 될 것이다. 전시기간 중에는 연계 프로그램으로의 일환으로 참여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마련한다. 작품에 관한 궁금증과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제공한다.

◇ 문의 : 단원미술관(031-481-0505)
http:// www.danwon.org
이선희 명예기자_jamyou70@hanmail.ne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2 Culture Calendar 문의 : 안산문화재단(080-481-4000), 경기도미술관(031-481-7000), 단원미술관(031-481-0505)				2 JUNGLE BOOK 2016.12.8(목)~12.10(토) 연극 <더 정글북> 일시 2016.12.8(목)-12.10(토) 목10am, 금10am, 7:30pm, 토3pm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2 전설의 리틀농구단 2016.12.15(목)~17(토)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 일시 2016.12.15(목)-17(토)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산책자의 시선 (In the Flâneur's Eyes) 일시 2016.12.15~2017.02.05 장소 경기도미술관	5 단원김홍도의거리풍정 일시 2016.12.6~ 장소 단원미술관 2관	6 단원 김홍도의 거리 풍정 일시 2016.12.12~12.18. 장소 단원미술관 2관	21 클래식 <스티브바라캣 크리스마스콘서트> 일시 2016.12.22(목) 7:30pm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8 안산시립합창단 제55회 정기연주회 일시 2016.12.15. 19:30~21: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해돋이극장	9 무용 <엠비규어스댄스 컴퍼니_바디콘서트> 일시 2016.12.15(목)-12.17(토)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17 2017 안산천년의 종 타종 일시 2016.12.31(토) 11:30pm 장소 화랑유원지(단원각)
겨울기획전 (산수)풍경으로부터 일시 2016.11.15~2017.01.31 장소 단원미술관 1관	12 안산미술협회 서예문화분과전 일시 2016.12.12~12.18. 장소 단원미술관 2관	19 2016 안산시 송년음악회 일시 2016.12.27(화) 7:30pm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22 안산시립합창단 제55회 정기연주회 일시 2016.12.22(목) 7:30pm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15 이탈리아 피렌체 일시 2016.12.27(화) 7:30pm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16 2016.12.22(목) 7:30pm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24 2017 안산천년의 종 타종 일시 2016.12.31(토) 11:30pm 장소 화랑유원지(단원각)

Photos in Ansan 사진으로 보는 안산

중앙동



“언 손을 녹인다. 소소한 일상을 즐긴다”

주말 중앙동에 가면 우리네 살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연탄불에 언 손 녹이는 상인부터,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꼬마
그리고 젊음의 에너지가 넘치는 청춘까지... 모두 우리다.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_ hanmarus@naver.com



만성기침! 어찌할 것인가

• 더베스트내과 대표원장(현 안산시의사회 회장) 이호준



기침은 해로운 물질이 기도 내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폐와 기관지에 존재하는 해로운 물질을 몸밖으로 제거하는
유익한 신체방어 기능이지만 장기간 지속되면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혹은 심각한 질환의 징조일 수 있으므로 원인 규
명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기침 지속 3주 이하이면 감염이
가장 흔한 원인이므로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대증치료하

며 기다리지만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비염이나 축농증 인한 후비루 증후군, 위산역류 및 천식은 만성 기침의 가장 흔한 3
대 원인입니다. 그 밖에도 심한 폐렴 뒤에 생길 수 있는 기관지 확장증, 만성 기관지
염, 폐결핵이나 기관지결핵, 폐암 등의 질병들도 만성 기침의 원인일 수 있으므로 개
인의 병력과 특성에 따른 철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고혈압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

중에는 기침을 유발하는 것이 있으므로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하여 말씀 해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염증과 알레르기의 정도를 파악하는 혈액 검사, 가슴과
코 방사선 촬영, 가래 검사, 폐기능 검사 및 위내시경 검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상에 따라 치료를 먼저 해보고 반응을 관찰하며 원인을 추정하여 치료 계획을 잡
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기침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그 원인을 근본적
으로 제거하는 것이며 설사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부작용 없이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이나 공포감에 근거 없는 민간 비방에 매달리는 안타까운 경우가 실제
로 많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수가 적지 않으니 절대 금물입니다. 주치의와
의 자세한 상담이 안전하고 항구적인 치유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7일 동안 진행

예결위 구성안·부가가치세법 개정건의안, 처리 예정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회기에 들어갔다. 사진은 이날 본회의 중 한 장면

안산시의회가 25일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 것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21일까지 27 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의 처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경우 주미희(위원장), 윤석진(간사), 김정택, 나정 숙, 성준모, 손관승, 송바우나 의원 등 7인으로 구성이 완 료됐다.

시정연설에 나선 제종길 시장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첨단산업 도시 기반 마련 △

개발 사업 이익의 선순환 구조 형성 및 다양한 일자리 창 출 △숲의 도시 조성 사업 박차 △해양 생태 관광 도시 및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도시 안전 확립 △복지 및 교육 강화 △문화·예술·스포츠·전시 결합한 S마이스 산업 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등 일곱가지로 꼽으며, 의회의 협 조와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 기준액 인상) 개정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승현 부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간이과세 제도는 1999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17

년간 기준금액이 인상되지 않아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한다 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간이과세 기 준액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준호 의원은 현 시국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이 와 관련해 지역에서도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5 분 자유 발언을 실시했으며, 나정숙 의원도 5분 자유발언 을 통해 주민 발의 조례안인 ‘안산시 건강도시 조성 및 주 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이 시 조례·규칙 심의회의에서 각 하 된 사실의 문제를 짚었다.

이민근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에는 안산시 역사 이 래 최대인 2조 6천520억 원의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 게 된다.”면서 “의원들은 쓴 화살이 돌에 깊이 박힐 정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중석몰촉(中石沒鐵)의 자세로 예산 심 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이어 11월 28일부터 12월 7 일까지 4개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과 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하며,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 12월 20일과 21일에는 2·3차 본회의를 개최해 각각 시정질문과 안건 의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11월 나눔의 날 맞아 초지경로식당서 봉사활동 펼쳐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21일 초지경로식당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21일 ‘11월 나눔의 날’을 맞아 초지경로식당에서 봉사활동을 실시 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초지경로식당은 인근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시민과 독 거노인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날도 식당에는 지역의 많은 노인들이 찾아와 의원들과 식당 관계자들이 준비한 따스한 밥과 국으로 한끼 식사를 해결했다.

의원들은 식당을 찾은 노인들이 편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음식 나르기과 잔반 처리를 도맡았으며, 식사 뒤에는 설거지로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봉사에 앞서 복지관 측이 준 비한 보고 자료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주미희 의원(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25일 제1차 예결위에서 위원장에 선출된 뒤 기념 촬영에 임하고 있는 주미희 의원의 모습.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25일 개최한 가운데 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주미희 의원이 선임 됐다.

의회는 이날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 성한 데 이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장에 주미희 의원을, 간사에 윤석진 의원을 선출했다.

예결위원으로는 김정택, 나정숙, 성준모, 손관승, 송바우나 의원이 선임됐다.

안산시에 하고 싶은 말! 말! 말!



안녕하세요? 엇그제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도서관에 갔었는데요. 영어책도서관이 있어서 아이들이 맘껏 책도 볼 수 있고 영어동화구연 선생님이 재미있게 책도 읽어 주시네요. 그런데 제가 사는 월피동 지역에는 작은 어린이 도서관이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월피동에도 멋진 도서관이 건립되어 아이들과 청소년들 모든 세대가 지식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길 바랍니다.



시에서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시민에게 지식정보와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성 및 환경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월피동 지역에도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시에서도 잘 알고 있으며 현재,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적당한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산시 중앙도서관



어제(11월 6일) 가을 날씨가 너무 좋아서 부모님과 같이 호수공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나무로 만들어진 짧은 다리를 건너다가 물고기가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려고 아등바등하다가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물을 갑자기 뺀 것인지, 빠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물고기들이 나갈 수도 없고 바닥은 모두 돌이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결국 다 죽더군요. 공원 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환경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산에 더 큰 힘을 보태고 싶네요.



시에서는 매년 호수공원의 습지가 육지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호수 내 오염 물질 제거를 위해 호수물이 얼기 전에 물을 방류하여 갈대 및 수초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물고기가 많고 갈대에 서식하지 않던 치어가 새로 생겨나면서 방류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 다. 사실을 접한 뒤 물고기들을 호수 쪽으로 이동 조치하여 대부분의 물고기를 살렸으며, 물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물을 기존 수량으로 유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관리방식을 개선하여 동절기에도 수생식물 및 수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계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산시 공원과



매일 아침 자전거로 산단에 출퇴근하는 사람입니다. 별망로 자전거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위험한 차도를 이용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7시~9시)에 불법주차가 없도록 단속 부탁드립니다.



우선 자전거도로 불법 주차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별망로 자전거도로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자전거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단원구 경제교통과

시민의 의견을 크게 듣겠습니다



시장에 바란다 <https://mayor.iansan.net>
 사람중심 이야기 마당(매월) <https://sotong.iansan.net>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동 방문(월 2회)
 안산드림TV <http://ansandream.tv>
 시민제안 <http://idea.iansan.net>

2017년 안산시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 채용분야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공원청소, 시설물유지관리, 예초, 방제작업 등)
- 채용인원 61명 ○ 접수기간 2016.12.05 ~ 2016.12.07(3일간)
- 접수방법 안산시청 별관 공원과(환경에너지교통국 4층) 방문접수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접수 (대리 또는 우편접수 불가)
- 문 의 031-481-2649, 2470, 2648

만족도 설문조사 당첨자 발표

<소중한 의견 더 좋은 소식을 만드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이름과 핸드폰 뒷자리 표기)

홍헌희(8906) 조형순(0092) 김희숙(8268) 한정분(9493) 윤지현(8864) 신현봉(3991)
 박철희(6670) 강성진(2720) 김은미(0123) 신준호(0326) 양연지(0754) 김록주(1677)
 진홍섭(1787) 박미선(4693) 맹설현(0833) 신광주(0014) 공지혜(9202) 정소영(8555)
 류재필(0521) 이명희(4489) 조동성(1492) 김현정(3096) 이연서(3702) 조혜리(0618)
 박준호(8026) 정희수(8691) 허미정(1732) 곽재은(1834) 김현지(3525) 김하진(2171)

안산갈대습지 임시휴장 알림

- 임시휴장 대상시설 안산갈대습지
- 기 간 2016. 11. 26.(토) ~ AI 위기경보 “경계” 해제시까지
- 배 경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
- 사 유 철새(야생조류)에 의한 탐방객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예방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



안산소방서